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첨단재생의료 CDMO 사업 확장

(위탁개발생산)

서울아산병원 연구협력 고도화
연내 세포처리시설 설립 계획
“맞춤형 치료 솔루션 제공 목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첨단재생의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본격 확장에 나선다. 국내 유일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월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최근 서울아산병원과 협력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CDMO 사업의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최첨단 기술을 위한 세미나 시리즈 IV: 오가노이드 기술 및 중개의학적 세포 치료 혁신’ 심포지엄에서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산의대 소화기병연구소,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의공학연구소, 세포치료센터, 그리고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첨단 재생의료 및 오가노이드 기반 중개연구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달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최첨단 기술을 위한 세미나 시리즈 IV: 오가노이드 기술 및 중개의학적 세포 치료 혁신’ 심포지엄에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왼쪽 네번째), 김태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왼쪽 여섯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특히, 2월21일부터 시행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과 맞물려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희귀·난치 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및 첨단재생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희귀·난치질환 치료 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가속화하고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인 기대를 높이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올해 하반기 서울아산병원 내 첨단재생의료용 세포 처리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용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본부장은 “기존 전문인력들의 다양한 치료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컨설팅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까지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첨단재생의료 CDMO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존 줄기세포 및 생물학적 제제와 차별화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아톰·ATORM) 기술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첨단재생치료제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치

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원장은 “첨단재생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연구들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현재 오가노이드 기반 장(腸) 재생치료제 ‘아톰(ATORM)-C’를 개발 중이다. 회사측은 이르면 내년 아톰-C의 치료계획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상 단계에 있는 의약품이라도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중대·희귀 난치질환 환자일 경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CDMO 사업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오가노이드 치료제 관련 컨설팅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부광약품, CNS 제품군 강화... 실적 개선 속도낸다

(중추신경계)

치매복합제 ‘아리플러스정’ 출시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 역량 집중

부광약품이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며 실적 반등에 나선다.

3월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이달부터 치매복합제 ‘아리플러스정 10/20mg’를 출시해 제품군을 확장했다.

아리플러스정은 도네페릴염산염과 메만틴염산염을 함유하고 있는데, 기존 치료제와 달리 두 성분을 하나의 정제에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성분의 병용요법은 중등도 및 중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에서 인지 및 비인지 증상을 개선한다는 임상학적 근거를 갖춰 의료 현장에서 함께 처방돼 왔다. 이에 따라 복합제 개발은 부광약품을 포함한 8개사가 공동 진행했고, 부



부광약품 본사 전경 /부광약품

광약품은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부광약품은 올해 주력 사업인 중추신경계(CNS) 전문의약품 부문에서 매출 개선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광약품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375억원에서 흑자전환을 이뤄냈다. 당기순손실은 2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344억원에서 적자폭을 줄였다.

CNS 의약품의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42%를 기록했다. 특히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에 쓰이는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의 시장 조기 안착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라투다는 지난해 8월 첫 출시 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약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빠르게 공급됐다.

라투다는 기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인 체중 증가,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증가, 혈당 증가 등 대사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 빈도가 낮아 장기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또 약물 선택이 제한적인 양극성장애 우울증 환자 및 소아환자에서도 효과를 갖췄다.

이와 함께 부광약품은 불면증 치료제

잘레핀, 우울증 치료제 익셀캡슐, 뇌전증 치료제 오르필 등을 내놓으며 CNS 의약품 시장에 지속 집중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대표이사 직속의 CNS 사업 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자회사 콘테라파마 이사회에 신약개발 전문가도 영입했다.

부광약품은 성장동력으로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부광약품이 지난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234억원이다.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14.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서 2023년에는 연간 매출의 27.4%인 346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썼다.

부광약품 측은 “올해 하반기까지 내실 성장과 체질 개선 안정화를 이뤄, 신약 도입, 신규 사업 진출 등을 적극 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스타벅스
‘LOVE DAZE’ 프로모션

‘SS 스탠리 러브 캔처 텀블러’ 판매

스타벅스 코리아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3월 4일부터 16일까지 ‘LOVE DAZE’를 주제로 온라인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이번 ‘LOVE DAZE’ 프로모션을 통해 글로벌 스타벅스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된 ‘SS 스탠리 러브 캔처 1183ml 텀블러’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SS 스탠리 러브 캔처 1183ml 텀블러’는 강렬한 핑크 컬러와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적용된 특별한 소장 가치를 지닌 대용량 텀블러로 스타벅스 온라인 채널에서 단독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크림이한 바스크 치즈 케이크에 초콜릿의 달콤함을 더해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인 ‘바스크 초콜릿 치즈 케이크’가 출시되며 하겐다즈 벨지안 초콜릿과 딸기 아이스크림 조합에 하트 초콜릿을 더한 시즌 한정 아이스크림 케이크인 ‘뽕큐 베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3월 5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 출시 및 3월 11일 스타벅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한다. ‘뽕큐 베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핑크 메슈백’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바사, ‘스카이바리셀라’ 중남미 공급

(자체 개발 수두백신)

범미보건기구 사전 통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2027년까지 중남미 지역에 자체 개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를 공급할 것을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범미보건기구(PAHO)로부터 사전 통지받았다고 3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2년 PAHO의 수두백신 입찰에서 첫 수주에 성공했고, 최근 3년 간 중남미 국가에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신뢰를 쌓았다.

PAHO 입찰을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전적격평가(PQ)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스카이바리셀라는 앞서 2019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2018년 상용화된 스카이바리셀라는 글로벌 임상상을 통해 만 12개월~12세 소아에서 약물 면역원성 및 유효성을 증명했다. 특히 PQ 인증을 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수두백신을 대조군으로 활용해 우수한 항체 반응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YH35324’ 신약개발 순항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오말리주맙 대비 높은 억제효과 확인

유한양행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AAAI)의 2025년 연례 회의에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YH35324’ 연구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한양행이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YH35324’ 임상 1b상 파트1 결과다. 파트1의 목적은 H1 항히스타민제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에 대한 추가 요법을 증명하는 것이다. 8주간 ‘YH35324’ 3mg/kg

g, 6mg/kg 또는 오말리주맙 300mg을 단회 피하 주사해 약물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이다.

임상시험 결과, ‘YH35324’는 경쟁 약물인 오말리주맙 대비 더 강력하면서 지속적인 혈중 유리 면역글로불린 E ‘억제’ 활성을 나타냈다.

만성 두드러기 평가 지표인 ‘7일 동안의 두드러기 활성도 점수(UAS7)’를 이용한 증상 점수를 평가한 결과, ‘YH35324’ 6mg/kg 투여군의 UAS70점환자 비율이 오말리주맙 투여군 대비 높았다.

/이청하 기자